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0월 28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농기원, 제주 메밀 활용 즉석 죽·가래떡 시제품 2종 개발-6면	미래농업육성과	삼다일보
○	최근 잦은 비·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우려…적기 방제 필요-4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잦은 비…수확 지연 감귤 부패 주의-1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잦은 비·높은 습도' 감귤 부패 우려 확산-1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잦은 비·높은 습도…감귤 부패 확산 비상-3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서귀포레드향연구회 현장교육-13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서귀포레드향연구회, 역량강화 교육-1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농업농촌정보-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무 솎아내기 작업 한창-3면	-	삼다일보
○	월동무 조기 출하로 홍수출하 막는다-6면	-	한라일보
○	올 상반기 취업자 1위 산업은 '농업' -6면	-	한라일보
○	11월 7일 '제주청년농 페스타' 개최-6면	-	한라일보

(삼다일보: 2026년 10월 28일)

○ 제주농기원, 제주 메밀 활용 즉석 죽·가래떡 시제품 2종 개발-6면

제주농기원, 제주 메밀 활용 즉석 죽·가래떡 시제품 2종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제주 메밀의 가공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메밀 즉석 죽과 메밀 가래떡 등 건강 간편식 시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편식 시제품 2종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2025년 자체 개발한 '찐 메밀가루'(증숙분말)로 만들었다.

메밀 즉석 죽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부드러운 죽이 되는 막대형 포장 제품이다.

메밀 가래떡은 실온에서 굳는 현상을 줄이고 한입 크기의 냉동제품으로 만들어 자연해동이나 전자레인지 가열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가공업체와 협력해 시제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이전으로 제주 메밀 가공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김태균 원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이 제주 메밀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메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공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밀죽과 메밀 가래떡.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10. 28.
삼다일보 6

이정민 기자 73jmlee@sam[illegible].com

(제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최근 잦은 비·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우려…적기 방제 필요-4면

최근 잦은 비·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우려…적기 방제 필요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피해가 우려돼 농가들의 적기 방제와 철저한 수확 후 관리가 요구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에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지연되고,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하고 있다.

또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가운데 일부는 입고 후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고, 선별 후 내륙 유통 과정에서도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10. 28.
제주일보 4

(제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잦은 비…수확 지연 감귤 부패 주의-1면

잦은 비…수확 지연 감귤 부패 주의

과실 나무서 썩는 수부증 확산
유통 중인 감귤도 부패 잇따라
저장병 방제 약제 적기 살포해야

최근 제주에 연일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맞은 노지 감귤이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썩거나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에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비가 연일 이어지면서 극조생 노지감귤의 수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중 일부는 입고 후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으며 선별 후 내륙 유통 과정에서도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은 이같은 수부증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비가 그친 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극조생 노지감귤은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과 사용 횟수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확한 감귤은 2~3일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는 예조 작업을 거쳐야 한다.

예조는 수확된 감귤 열매의 수분 함량을 줄이는 만큼 부패율을 낮출 수 있다. 또 선별 과정에서 썩은 과실을 철저히 제거해야 유통 과정에서 부패가 주변 과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현광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잦은 비로 감귤의 저장성과 상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수확부터 출하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노지감귤 부패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홍 기자

10. 28. 제민일보 1

(제주매일: 2026년 10월 28일)

○ ‘잦은 비・높은 습도’ 감귤 부패 우려 확산-1면

‘잦은 비·높은 습도’ 감귤 부패 우려 확산

수부증과 유통 중 부패…수확 후 철저한 선별 필요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장기간 비날씨가 이어지며 출하를 앞둔 노지 감귤의 부패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서귀포지역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비가 이어지면서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지연되며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중 일부는 입고 후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으며 선별 후 내륙 유통 과정에서도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귤 부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 방제와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수확한 과실은 충분히 예조한 뒤 썩은 과실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선별을 거쳐 출하해야 한다.

예조는 수확한 열매를 가볍게 건조해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저장성 향상



에 도움이 된다. 특히 극조생 노지감귤은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과 사용 횟수 등 [illegible]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llegible]

10. 28.
제주매일 1

(한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잦은 비・높은 습도…감귤 부패 확산 비상-3면

잦은 비·높은 습도… 감귤 부패 확산 비상

연속된 비에 극조생 수확 지연… 유통과정서도 부패 피해도, 피해 최소화 위한 적기 방제·수확 후 관리 철저 당부

제주 지역에 최근 이어지는 비와 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비가 이어지면서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중 일부는 입고 후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고, 선별 후 내륙으로 유통되는 감귤 또한 유통과정에서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산 노지감귤 도매 가격과 포전거래 가격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패 피해가 잇따르는 등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감귤 부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 방제와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농가에서는 비가 그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수확한 과실은 충분히 예조한 뒤 썩은 과실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선별을 거쳐 출하해야 한다.

예조는 수확한 열매를 가볍게 건조해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저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수확 후 2~3일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실시한다.

특히 극조생 노지감귤은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과 사용 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광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잦은 비로 감귤의 저장성과 상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수확부터 출하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노지감귤 부패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 28.
한라일보 3

이태윤기자 lty94[illegible]

(제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27일 ㈜한국생활개선제주시노형지부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한 여성농업인 리더의 역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다.

10. 28.
제민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서귀포레드향연구회 현장교육-13면



서귀포레드향연구회 현장교육

서귀포레드향연구회(회장 오병국)는 26일 레드향 재배 기술 향상 및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서귀포 레드향 재배 농가를 방문해 레드향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10. 28.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10월 28일)

○ 서귀포레드향연구회, 역량강화 교육-12면



서귀포레드향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레드향연구회(회장 오병국)은 지난 26일 연구회 회원 29명을 대상으로 레드향 재배 기술 향상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10. 28
제주매일 12

(제민일보: 2026년 10월 28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최근 여성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실습교육 및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0. 28.
제민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10월 28일)

○ 농업농촌정보-9면

■ 농업농촌정보

▲당근

△병해충 관리: 무름병, 세균잎마름병, 검은잎마름병 등 예찰·방제

▲콩

△수확시기: 잎이 누렇게되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 변색될 시

- 기계수확 시 성숙 후 15일 후(개화 후 60일 경) 줄기와 꼬투리 마를 때

※ 착협고 위치가 낮을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수확 후 철저한 건조·정선 필요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2)

10. 28.
제주일보 9

(제주일보: 2026년 10월 28일)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9면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

▲대상품목=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접수기간=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출품규격=S-M사이즈 5kg 1박스

▲접수 및 문의: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 (762-3091)

*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참고

10. 28.
제주일보 9

(제주매일: 2026년 10월 28일)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

○ 대상품목: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 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접수기간: 2026. 10. 26.(월)~10. 30.(금)
○ 출품규격: S-M사이즈 5kg 1박스
○ 접수 및 문의: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 ☎ 762-3091
 *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10. 28.
제주매일 8

(삼다일보: 2026년 10월 28일)

○ 무 솎아내기 작업 한창-3면



10. 28.
삼다일보 3

무 솎아내기 작업 한창 27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무농가에서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이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월동무 조기 출하로 홍수출하 막는다-6면

월동무 조기 출하로 홍수출하 막는다

개정 '농안법' 따라 제주광역수급관리센터 설치
제주 겨울무 광역주산지협의체도 꾸려 첫 회의
11월 조기출하 지원 사업 통해 물량 분산키로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뒷받침할 제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제주 겨울무 광역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한 조기 출하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 광역수급관리센터는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10월 초 설치됐다. 겨울무와 마늘, 양파의 수급 동향 분석부터 주산지협의체 운영,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

10. 28. 한라일보 6

총괄한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제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최근 '2026년 제1차 제주 겨울무 광역주산지협의체 회의'를 열고, 초대 위원장으로 박명종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을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겨울무 광역 주산지협의체는 행정·전문가·생산자단체·농업인·산지유통인 단체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겨울무 광역주산지협의체는 이날 '제주 겨울무 주산지협의체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위기 단계별 대응,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정 등 자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산 제주 겨울무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추진 방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주 출하기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11월 조기 출하 지원사업을 통해 홍수 출하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관련 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규격품 겨울무를 시장에 유통·출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시행되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상품성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월부터는 생육관리단(9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생육관리단은 주요 주산지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과 작황, 병해충, 기상 여건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협의체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은 "첫 겨울무 광역주산지협의체에서 의결한 안건은 농가와 현장이 주도하는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행정,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앞으로 제주 양파와 마늘 광역주산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한라일보: 2026년 10월 28일)

○ 올 상반기 취업자 1위 산업은 '농업' -6면

올 상반기 취업자 1위 산업은 '농업'

4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2% 차지

사회복지서비스업 2위, 음식점·주점업은 3위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으며,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던 음식점·주점업 취업자는 3위로 내려갔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4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중분류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4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만8000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증가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 늘어 3만8000명으로, 구성비 9.1%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으로 3만3000명, 5위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취업자가 3만명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밀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024년 상반기 6위,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2위로 오르면서 지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중분류별 도내 취업자 규모는 농축산 숙련직이 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만4000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3만1000명,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2만8000명,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1만9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10. 28.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0월 28일)

○ 11월 7일 ‘제주청년농 페스타’ 개최-6면

11월 7일 ‘제주청년농 페스타’ 개최

농협제주본부 야외 주차장에서
고품질 농산물·가공제품 판매
노래자랑·체험 프로그램도 열려

제주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혁신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농협제주본부는 11월 7일 본부 야외주차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농심천심 제주청년농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제주본부가 후원하고, 제주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생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타는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지

10. 28 한라일보 6

청년 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 혁신 상품을 홍보하는 행사다.

판매 홍보부스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고품질 타이백 감귤에서부터 오이, 쪽파, 레몬, 키위 등과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단호박 버터스프레드 등 가공제품도 선보인다.

또 지역주민 노래자랑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직접 만드는 DIY 스마트팜 시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농협제주본부는 이번 행사가 기술혁신과 지역 특화 작목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 청년 농업인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청년 농부의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미숙기자